

유노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이전까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어촌으로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온천 마을 유노쓰는 1561년 모리 씨족이 좁고 긴 협곡 입구에 항구와 수군을 위한 요새를 지으면서 서서히 이와미 은광의 중요한 공급 거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양쪽에 바위 투성이의 가파른 경사면이 있어서 적을 방어하기에 용이했던 유노쓰는 곧 이와미 은광에 식량, 연료, 건축자재, 술, 담배 등 필수품을 공급하는 주요 항구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리 씨족은 중국과 한반도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도 무역을 하며 마을에 국제적인 특성을 부여했습니다.

유노쓰는 에도 시대(1603~1867)에 한층 더 번영을 누리며 오사카에서 세토내해와 일본해를 지나 호쿠리쿠 지방까지 연결되는 '기타마에부네' 항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672년에 시작되어 후에 홋카이도까지 범위를 넓힌 이 유익한 항로는 해운업에 뛰어난 지역의 몇몇 씨족들이 막대한 부를 쌓게 한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유노쓰의 거리 모습은 도로와 수로를 포함해 적어도 이 풍요로웠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노쓰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은 1747년의 화재로 마을이 소실된 후에 지어진 나이트 가문의 주택입니다. 1570년 모리 씨족에 의해 유노쓰의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로 임명된 나이트 가문의 당주는 인근 오키도마리항에 드나드는 은 수송선의 보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지역의 유력한 존재가 되어 해운업, 주조업, 우편업 등을 운영했습니다.

나이트 가문 저택만큼 역사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유노쓰 마을에 서있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다이쇼 시대(1912~1926)에 지어진 건물이 많은 이곳은 특히 해질녘이 되면 옛날 그대로의 가로퉀이 좁은 골목을 비추며 레트로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한자로 '温泉津'이라 쓰고 '유노쓰'라 읽는 이곳은 지금도 온천 마을로 유명합니다. 오늘날까지 영업 중인 두 개의 공동욕탕에 몸을 담그면 여행의 피로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